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6

03



멈추지 않고 스스로 자라나는 순간

GROW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96

2026년 03월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THEME 1

성장

3월호의 키워드는 'Grow'입니다.

첫 번째 테마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아이가 아장아장 첫발을 내딛듯 서툴지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비틀거리다 균형을 잡고 두 발로 서는 순간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THEME 2

확장

두 번째 테마는 '확장'입니다.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시야, 이 모든 장면이 곧 확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지점에서 확장의 의미를 들여다봅니다.



성장



06. 월간 수토픽

상생의 씨앗이 희망으로 자라다
지역상생 프로젝트

10. Gallery

오늘도 나답게
자라는 시간

14. Theme Road

느림의 미학, 하동

20. Travel Guide

초록의 숨결을 담은 마음의 쉼터
새싹 명소

22. Voice on Road

찾아가 자라는 만큼 향기로운 시간
김완준 제다인

26. The Kit

일잘러를 위한
쇼핑 리스트

28. Taste Note

자연이 길러낸 봄의 맛
봄나물

확장



30. Theme Prism

오늘도 한 뼘 더 Grow

32. Opinion

Z세대에게 사랑받는
리퀴드 콘텐츠의 비밀

34. Talk with

다시 일어날 용기 역주행의 신화
가수 황가람

38. 수타백스가 간다

소양강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자들
강원수열사업단

42. Water & Tech

끝나지 않는 재해, 산불과 홍수

46. Light on

모두에게 공평한 물, 우리의 약속
2026 세계 물의 날

48. Newsroom

52. Water Lounge

시간이 깎아 만든 바다의 조각상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56. Monthly Issue

호주와 솔로몬제도에서 깨달은
수자원의 중요성

58. Water Tales

잉카문명이 시작된
티티카카 호수

60. #알고리즘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6년 3월 3일 | 통권 696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상생의 씨앗이 희망으로 자라다 지역상생 프로젝트

물을 중심으로 지역과 사람이 만나고, 일상이 브랜드가 되는 순간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로 지역의 미래를 잇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나눔장터의 웃음부터 로컬브랜드의 탄생까지, 물에서 상생의 가치가 자라고 있다.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지원사업 현장



지역과 마음을 잇는 상생의 장터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9일 아침,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로비는 일찍부터 활기로 가득 찼다. 손수 진열대를 꾸미는 농업인들의 손길과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매하려는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현장은 활기찬 장터의 풍경을 연출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지역 상생 나눔장터' 현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9월부터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장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임직원과 농가가 직접 만나 소통하며 거래하는 방식이다. 본사에서 시작된 나눔장터는 현재 4개 유역본부까지 확대되며 대표적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청송군과 경남 진주시 등 낙동강 댐 주변 9개 지역의 농업인과 지역 사회적기업 11곳이 참여했다. 사과와 감, 한과, 참기름 등 참여 농가와 기업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농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는 당도가 더 좋아요", "이건 아침에 바로 따온 겁니다"라며 웃음 섞인 이야기를 건네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정겨운 전통시장의 정취가 자연스럽게 묻어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장터를 통해 2천5백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구매해 댐 주변 마을의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며, 설 명절을 맞아 나눔의 의미도 더했다. 이번 행사로 직원들은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농가는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공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름 그대로 '상생'이 실현된 하루였다.



2025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우수사례

대청호 로컬브랜드 '임원꿀벌식당'(대청댐지사)

- 지역 농가·주민 참여 작물 재배 및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주민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발굴 육성사업(충주댐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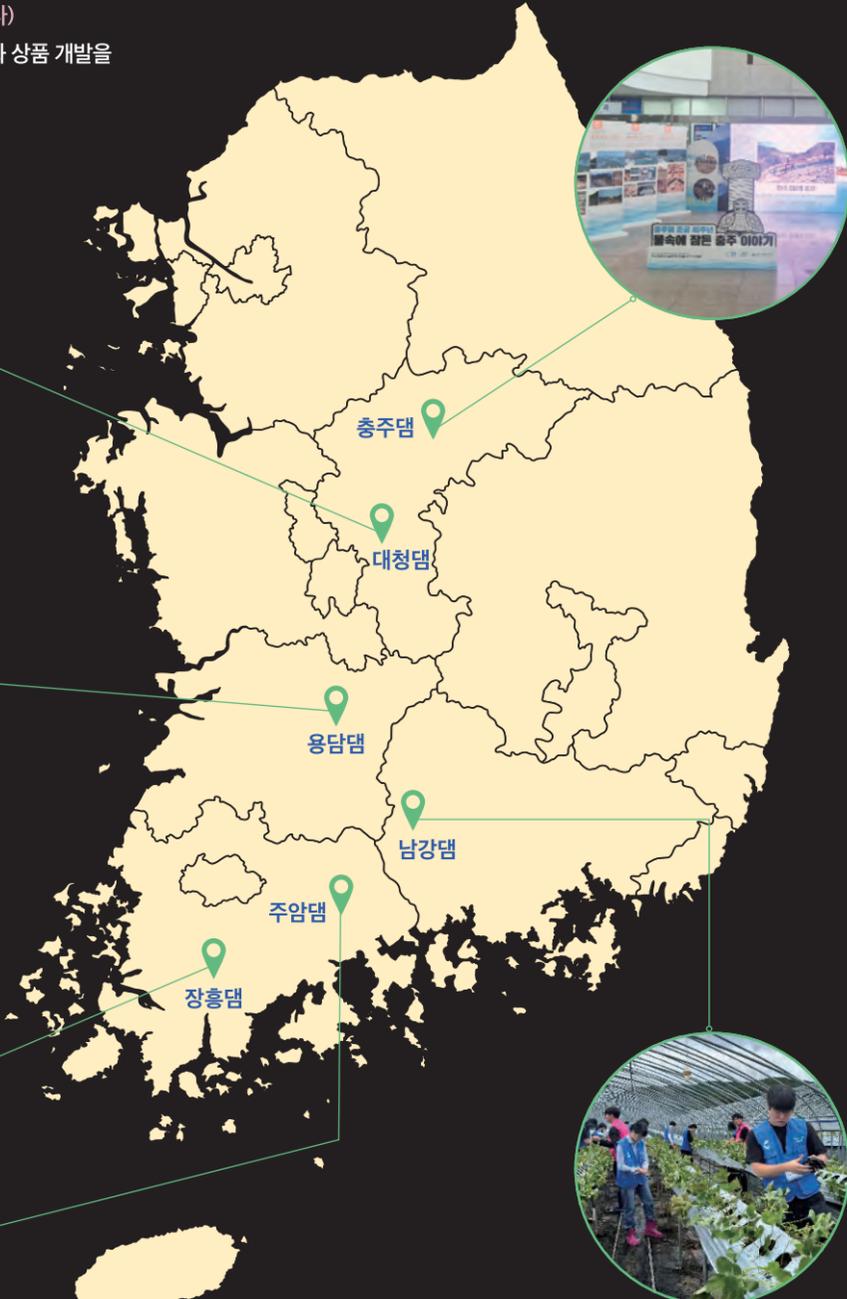
- 수몰이주민 구술채록 대중서 발간, 사진전·학술대회 개최, 역사문화자원 발굴성과 영상 제작 등



진안고원의 풍경을 담다,
용담댐 지역상생형 사이너지(용담댐지사)
· 지역 상생 댐 이미지 제고 및 댐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체성을 담은
사이너지 제작



온라인커머스로 댐주변지역 농특산물 판로지원 및 착한 소비 확산(영·섬경영처)
· 공공형 쇼핑몰 '남도장터'에 지역 농가 입점, 온라인 유통망 확보 및 라이브
방송 판매 진행으로 상생 가치 전달



지역 활력 충전 커뮤니티 '수수(水秀)한 만남'(남강댐지사)

- 청년농부 역량강화 멘토링, 아빠 육아 참여 활성화 커뮤니티,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커뮤니티 운영



댐주변지역과 함께 키워가는 상생의 가치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생은 하루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1990년부터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해 왔다. 현재 전국 37개 댐 주변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 도우미 지원,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영 등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주암댐, 대청댐, 남강댐, 충주댐, 용담댐 등 댐주변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상생의 씨앗을 틔우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됐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는 온라인 장터를 운영해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탤다. 오프라인 장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온라인까지 확장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의 잠재력을 브랜드로 키우는 '댐 로컬브랜딩'

지난해부터는 '댐 로컬브랜딩'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댐 로컬브랜딩은 댐 주변의 우수한 수변 공간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5월 진행된 사업 공모에는 10개 댐 인근 12개 지자체가 총 15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강원 양구군, 경북 안동시, 전북 진안군이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각 지자체는 수변 공간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특화(RE100) 마을 조성, 친수관광사업, 로컬마켓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하고, 이를 수변 공간과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댐 로컬브랜딩은 결국 댐의 우수한 수변환경을 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시도다. 물이 머무는 공간을 사람과 산업, 문화가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자원을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키우고, 지역의 이야기를 매력적인 콘텐츠로 확장함으로써 자립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역과 함께 가치를 만들고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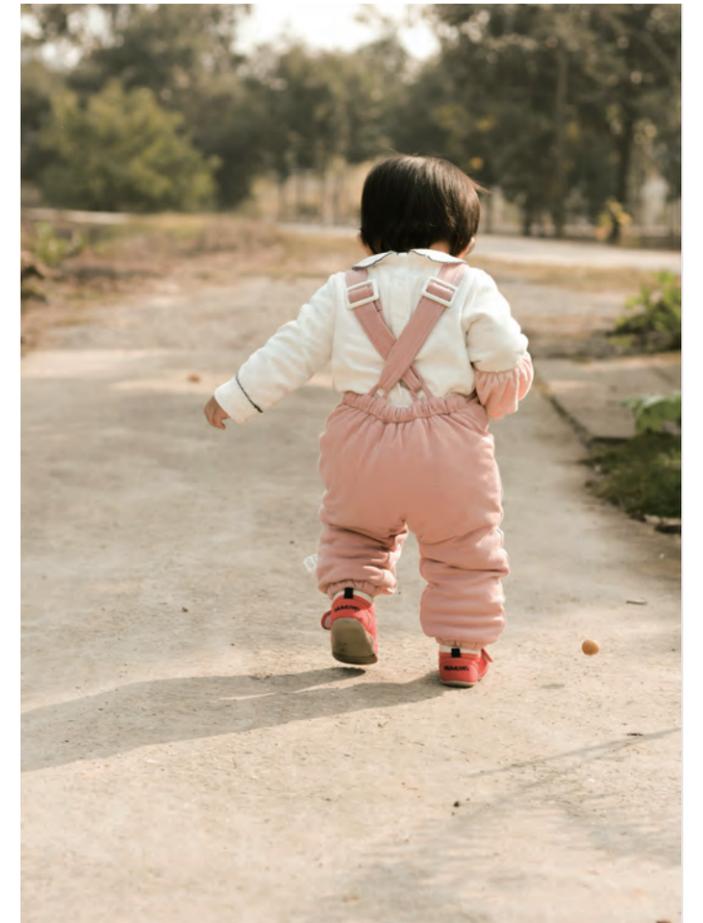
GROW

오늘도 나답게 자라는 시간



비 온 뒤에 돌아난 새잎처럼
예전에 몰랐던 일을 혼자서 척척 해내며
더 초록해진 잎사귀처럼 자라 있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 나 생각보다 잘 크고 있었네.'

어쩌면 성장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발을 내딛는 순간처럼.





Step by Step to Grow



오늘도 우리는 성장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는데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작은 발견 하나,
조금 더 넓게 바라본 시선 하나가
내 안의 지도를 슬며시 넓혀줍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이
어느새 나를 다른 세계로 이어주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고 또 넓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Theme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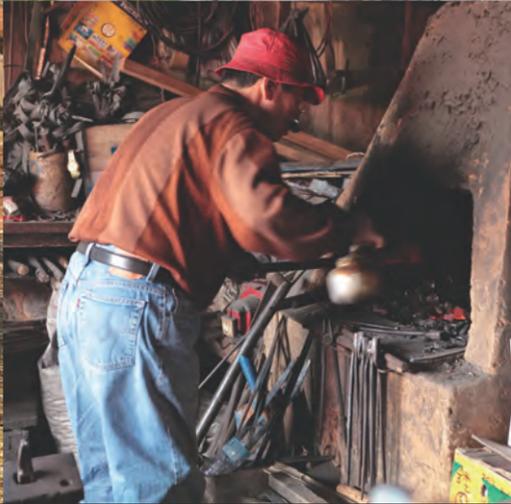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드림의 미학,

하동 여행

봄이 오면 섬진강은 한 폭의 비단이 되고, 그 물길을 따르는 꽃길은 하늘로 향하는 통로가 된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하동 '십리벚꽃길'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생명력과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며 그 지평을 넓혀왔다.



화개장터, 섬진강 즐기 따라 장이 선다

여정은 하동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초, 화개장터에서 출발한다. 유명가요 '화개장터' 노랫말처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즐기 따라...' 시골벽적 장이 열린다. 화개장터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조선팔도에서 손꼽히는 큰 장이었다. 인근 지리산의 화전민들은 고사리, 더덕 등을 바리바리 가져왔고, 전남 구례, 경남 함양 등 내륙지방 사람들은 쌀과 보리 등 곡류를 내왔다. 조선팔도를 떠돌던 보부상들도 이곳을 놓

칠 리 없었고, 여수, 광양, 남해, 삼천포, 충무, 거제 등 바닷가 사람들은 뱃길을 이용해 수산물을 가득 싣고 왔다. 보기에 그냥 시골 장터 같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며 서로 다른 언어와 풍습이 섞였고, 이는 하동만의 독특한 시장 문화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비록 현대에 들어 상업화로 인해 옛 정취가 희석되었다는 아쉬움도 들리지만, 술한 만남과 이별 속에서 삶의 외연을 넓혀



화개장터

- A**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 T** 055-883-5722

드라마 <토지> 촬영지 최참판댁

- A**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66-7
- T** 055-880-2960



온 시장의 역동성은 여전하다. 특히 장터 입구 대장간에서 울려 퍼지는 둔탁한 망치 소리는, 이곳의 역사가 박제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화개장터를 뒤로하고 1023번 지방도를 따라 발길을 옮긴다. 매년 4월 초면 약 5km에 걸쳐 분홍빛 꽃길이 펼쳐져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 길 위의 벚나무 1,200여 그루는 1931년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신작로가 놓일 당시 주민들이 직접 심은 것이다. 척박한 시대에 주민들이 정성껏 심은 묘목들이 이제는 거대한 벚꽃터널이 되어 여행자를 맞이한다.

최참판댁과 평사리 들녘

십리벚꽃길의 허리춤에는 악양면 평사리가 자리한다. 소설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주 무대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이곳에 연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이곳의 풍경에서 소설의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탁 트인 평사리 벌판과 비옥한 토지, 그 곁을 굽이치는 섬진강과 병풍처럼 마을을 품은 지리산까지. 모든 조건이 대하소설의 장대한 서사를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악양면은 30개 마을이 어우러진 '슬로시티'다. 과거 나당연합군을 이끌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곳의 풍광을 보고 "중국 후난성의 악양과 흡사하다"라며 감탄하여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그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마을답게, 이곳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야 제맛이다. 먼저 마을 입구의 동정호를 찾았다. 고요한 호숫가엔 꽃들이 봄을 노래하고, 가지마다 돌아난 연둣빛 새순들은 봄바람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춘다. 호수를 지나 높다란 언덕 위 최참판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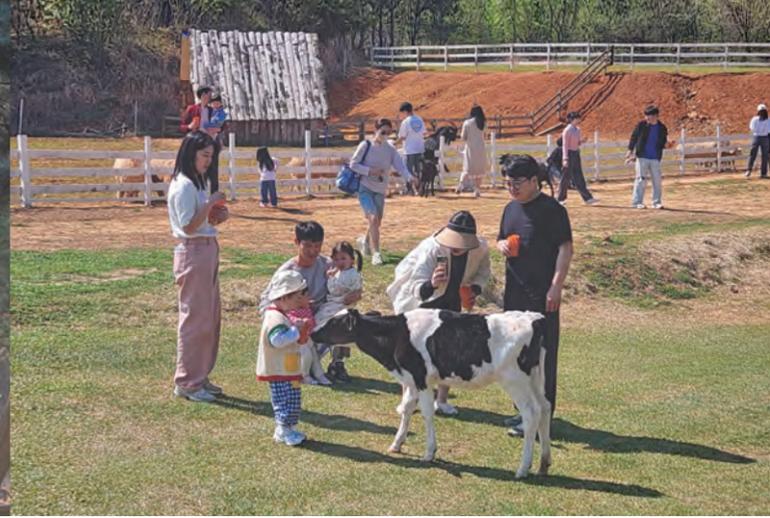
향해 걷다 보면 어느새 숨이 가빠온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 보길 권한다. 정상에 서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바둑판처럼 정갈하게 나뉜 악양 들녘이 시야 가득 펼쳐지기 때문이다. 따스한 기운이 잠든 대지를 깨우고 파릇한 새순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왜 작가가 이곳에서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았는지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길은 소설 속 인물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마을로 이어진다. 길상이네와 소작인 가옥, 이평이네 등 소설 속 장면이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그중 여정의 정점은 단연 최참판댁이다. 특히 최고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사랑채 누마루와 주인공 서희의 고결한 슬픔이 서린 별당채는 반드시 챙겨봐야 할 백미다.

왕의 차, 그 깊은 향기를 따라서

츄츄한 빛나무 사이사이로 푸른 차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가지런히 다듬어진 차나무들은 마치 초록빛 가래떡을 뽑아 놓은 듯



정갈하다. 흔히 녹차 하면 보성을 떠올리지만, 하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야생 차나무가 자생하는 진정한 '차(茶)의 고향'이다. 우리나라 차 문화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시작되는데, 신라 선덕여왕 때 이미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특히 하동 화개 지역은 신라 시대부터 왕실에 차를 진상하던 대표적인 '다소(茶所)'였다. 고려 시대에는 궁중 차를 관장하는 '다방(茶房)'이라는 관청이 있었고, 하동은 구한말까지 임금께 차를 올리던



곳이었다. '왕의 차'라는 별칭은 하동 차가 지닌 독보적인 위상을 증명한다. 하동 차는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잎으로 만들었다 하여 '죽로차(竹露茶)', 참새 혀바닥처럼 작은 잎을 닮았다 하여 '작설차(雀舌茶)'라고도 불린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명품이다. 쌍계사 초입의 하동야생차박물관(차문화센터)에 들르면 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으며, 정성 어린 다례 체험을 통해 차 한 잔의 여유를 배울 수 있다. 박물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는 차와 깊은 인연을 맺은 쌍계사가 자리한다. 신라 성덕왕 22년(723년)에 창건된 쌍계사는 '두 갈래 물길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처럼, 세속의 번잡함이 씻겨 내려가고 종교적 경건함이 차오르는 경계에서 있다. 화산한 봄기운에 들떴던 마음도 일주문을 통과하는 순간 차분히 가라앉는다. 경내에는 최치원이 진감선사의 업적을 기리며 비문을 지은 국보 '진감선사탑비'가 천년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있으며,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은 지리산의 깊은 품에 안겨 단아한 기품을 뽐낸다.

하동송림과 해뜰목장, 정적 휴식과 동적 교감

섬진강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 곳에는 300년 역사의 천연기념물 하동송림이 있다. 조선 영조 21년(1745년), 강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이 숲은 약 2km에 걸쳐 노송들이 장관을 이룬다. 숲에 발을 들이면 코끝을 찌르는 진한 솔향에 압도된다. 강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지는 솔향을 맡으며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에 젖어 든다. 하동송림이 정적인 휴식처라면, 옥종면에 위치한 해뜰목장은 생동감 넘치는 교감의 장이다. 지리산 옥산을 병풍 삼아 펼쳐진

초원에서 양과 염소, 젓소들이 노니는 풍경은 마치 유럽의 산골 마을에 온 듯 이국적이다. 이곳에선 풍경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송아지 우유 주기, 피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낙농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직접 만든 신선한 요거트와 빵을 챙겨 잔디밭에서 즐기는 피크닉은 해뜰목장 여행의 백미다. 흔히 '성장'을 속도의 문제로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하동 여행에서 배운 성장은 '깊어짐'에 있었다. 어린 찾있이 인고의 시간 끝에 깊은 향을 품은 차가 되듯, 우리의 삶도 하동의 봄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게 익어가리라 믿는다.

쌍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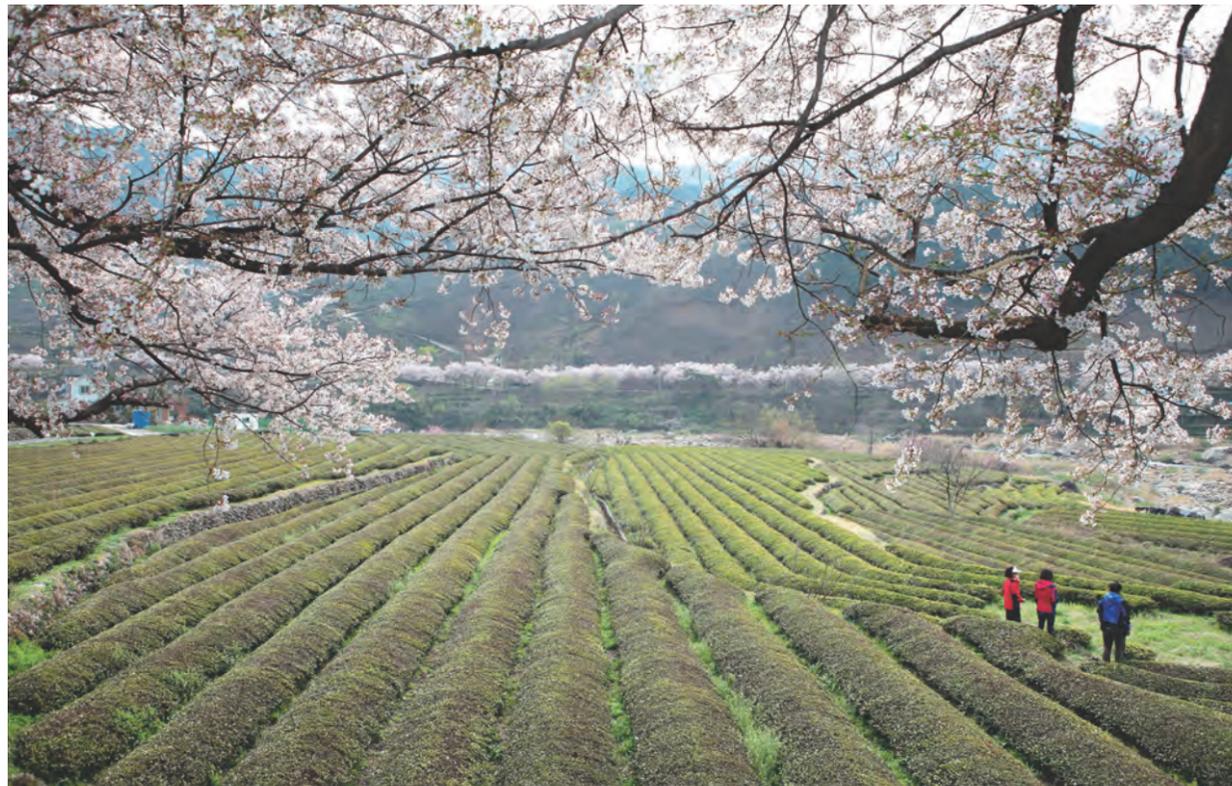
- A**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 T** 055-883-1901

하동야생차박물관

- A**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 T** 055-884-2955

해뜰목장

- A**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길 31-108
- T** 055-810-8101



초록의 숨결을 담은 마음의 쉼터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초록의 빛은 지친 마음에 건네는 가장 고요한 위로다. 끝없이 펼쳐진 잎사귀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고 나를 되찾을 여유를 얻는다. 싱그러운 대지 위에 피어난 초록빛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에 쌓였던 소음들은 어느새 자연의 소리에 묻혀 아득해질 것이다.

보성 대한다원

초록의 물결이 산비탈을 따라 굽이치는 풍경은 마치 대지가 숨을 쉬는 형상이다. 보성 대한다원은 1957년부터 이어온 한국 유일의 차 관광농원으로, 내륙에서 가장 거대한 초록의 바다를 품고 있다. 농원으로 들어서는 길목,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삼나무 숲길은 속세의 먼지를 털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신선하다. 드넓은 평원에 내려앉은 찻잎들은 지리적 온화함과 바다의 습도를 머금어 유난히 영롱한 빛을 낸다. 직접 찻잎을 따 보거나 숲의 공기를 마시다 보면, '봉로(峯露)'라는 이름처럼 산이 내린 이슬을 온몸으로 맞는 기분이 든다.

- A**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63-43
- H** 09:00~18:00
- F** 성인 4,000원 / 청소년 3,000원

새 싹



산청 동의보감촌

지리산 천왕봉의 정기를 머금은 산청은 온통 약초 향기로 가득한 치유의 땅이다. 허준과 유의태의 발자취가 서린 이 고장의 산비탈은 알프스의 산록을 닮아 고즈넉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뽐낸다. 깎아지른 산비탈을 따라 S자로 굽이치는 농로를 오르면 이름 모를 야생화와 싹싹한 약초 향이 코끝을 스친다. 특히 안개 낀 새벽, 유의태 약수터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엔 산의 영혼이 담겨 있는 듯하다. 10월이면 열리는 한방약초축제는 그 깊은 향기를 나누는 마당이 된다. 맑은 계곡 물소리와 함께 걷는 약초밭 나들이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건강하게 채워주는 소중한 여정이다.

- A**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61
- H** 10:00~18:00
- F** 무료



명 소

가파도 청보리밭

바다 건너 불어오는 봄바람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 가파도에는 일찍이 초록빛 파도가 일렁인다. 이곳의 청보리 '향맥'은 제주의 거친 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향토 품종으로, 다른 곳보다 유독 높고 푸르게 자라나 59㎡(18만 평)에 달하는 너른 들판을 가득 채운다. 수평선과 지평선이 맞닿는 경계에서 일렁이는 청보리의 물결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보리가 절정을 이루는 4월 초에서 5월 초에는 축제가 열려, 올레길을 걸으며 소망을 담은 연을 날리다 보면 어느새 제주의 봄이 내 품 안으로 들어와 앉는다.

- A**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파도 일원
- H** 연중무휴
- F** 가파도 배편: 성인 14,500원 / 청소년 14,300원 / 소인 7,500원



담양 죽녹원

대나무 숲은 바람의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이다. 담양천변에 자리한 죽녹원은 단정하게 정돈된 대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비밀스러운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을 선사한다. 부드러운 흙길을 맨발로 걷다 보면 발끝으로 전해지는 대지의 감촉이 생생하다. 제다실에서는 죽로차를 마실 수 있어 관방제림 경관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대나무의 생애를 예술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전통적인 숲의 미학과 현대적 감성이 공존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A**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 H** 09:00~18:00
- F** 성인 3,000원 / 청소년 1,500원

연듯빛 찾임이 햇살을 머금고 자라듯, 하동 차(茶)도 사람의 손길 속에서 조금씩 자란다. 찾임을 뒤는 시간은 곧 마음을 키우는 시간. 김완준 제다인은 오늘도 한 잔의 향기 속에 계절과 이야기를 담아내며, 차와 함께 자신의 길을 단단히 넓혀가고 있다.

찾임이

김완준 제다인

자라는 만큼

향기로운 시간

찾아일을 뒤으며, 나의 세계를 넓히는 일

봄이면 온 동네가 연두색 파스텔을 칠한 듯 싱그러워지는 하동. 100여 개의 다원이 펼쳐진 이곳에선 자연이 길러낸 찾아일이 은은한 향을 틔운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도재명차 역시 그 풍경 속 한가운데 있다. 김완준 도재명차 실장은 찾아일을 따서 뒤고, 비비고, 말리는 청년 제다인이다. 호주에서 유학하던 그는 코로나19로 귀국하며 뜻하지 않게 고향 하동에 돌아오게 됐다. 2주간의 자가격리 동안 차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풍경을



바라보던 시간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일상에서 차가 건네는 위로를 새삼 느끼며, 태어나 자란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에 새기게 됐다.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일상이 됐어요. 내가 몰랐던 차를 알아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내 세계가 조금씩 넓어졌죠. 원래 승무원을 꿈꿨는데 멀리 떠나는 것만이 여행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죠.”

‘차 수저’로 태어난 그는 홍차 명인인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가업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하동청년농식품벤처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차밭 체험과 숙박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차를 ‘스쳐 가는 여행’이 아니라 ‘머무는 경험’으로 만들고 싶어하였다.

수확철에는 ‘제다 체험’을, 평소에는 예약제로 차 코스를 운영한다. ‘티 오마카세’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는 ‘차담’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차는 결국 사람을 마주 앉게 하는 매개체예요.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가 피어나거든요. 그게 참 좋아요.”

무쇠솥 위에서 단단해지는 법

아버지의 호에서 따온 ‘도재(茶在)’는 ‘전통의 차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름처럼 이곳은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일본처럼 증기로 찌는 방식이 아니라 무쇠솥에 찾아일을 뒤는 방식이다. 커피 생두를 로스팅하듯 찾아일을 볶아서 익히는 과정은 느리지만 묘하게 중독적이라고. 뜨거운 솥 안에서 찾아일이 구수한 향을 내며 변모하듯, 그 역시 인내의 시간을 지나며 뒤음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무쇠솥은 사람 손을 기억해요. 찾아일을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불의 세기와 향의 높이가 손끝으로 느껴지죠. 어떻게 뒤는지에 따라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과정을 거친 찾아일은 녹차, 홍차, 백차 등 다양한 차로 완성된다. 특히 이곳의 대표 차는 ‘잭살차’다. 찾아일 참새 혀바닥처럼 작다는 ‘작설(雀舌)’의 하동 사투리에서 온 이름이다. 유자, 모과, 돌배, 생강, 홍차를 블렌딩해 달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그는 매일 다른 향을 만나는 이 순간을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한다.

하동 차, 세계 뻗어가는 여정

하동 차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키운다. 자연에서 자라는 ‘야생 차’지만, 찾아일을 따는 일만큼은 사람의 손을 거친다. 와인에 ‘떼루아’가 있듯 차에도 땅의 기억이 배어 있다. 경사지고 돌이 많은 차밭은 물 빠짐이 좋고, 수많은 나무 그늘은 여름엔 차광, 겨울엔 보온이 된다. 자연이 차밭의 지붕이자 담장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견딘 찾아일수록 깊은 맛을 낸다. 그는 이 하동 차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2024년 라스베이거스 월드 티 엑스포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과 교류한 이후 현재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뒤음차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프랑스에 제다학교 설립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낯선 땅에서 차를 따고

뒤으며 역사와 철학을 나누는 시간은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다. 이렇게 차향이 국경을 넘는 순간, 그의 세계 또한 한 뼘 더 넓어졌다고.

“차를 소개하다 보면 ‘이 깊은 향은 무엇이나, ‘이 맛의 정체는 뭐냐고 물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지켜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목표는 단순하다. 하동 차를 더 넓은 세상에 알리는 것. 다만 깊이와 전통이 가볍게 소비되지 않도록, 어렵지도 가볍지도 않게 균형을 잇는 일이다.

“요즘 말차가 인기잖아요. 직접 만들진 않지만, 차가 젊은 세대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건 정말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다만 차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곁에 두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가 뒤는 것은 찾아일만이 아니다. 시간과 기억,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건넬 향기다. 오늘도 무쇠솥 위에서 은은히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성장의 궤적을 그리며 이어진다. 그리고 그 여정은 꽤 향기롭다.

방울 문구점

계절이 바뀌는 요즘, 괜히 책상부터 정리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무실에 작은 변화 하나만 더해도 일의 리듬은 훨씬 가벼워진다. 손에 착 붙는 펜 하나, 시선이 머무는 데스크 소품 하나가 의외로 큰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한다. 이번 봄, 나를 한 뼘 성장시켜 줄 사무실 쇼핑 리스트로 하루의 분위기부터 산뜻하게 바꿔 보자.

일잘러를 위한 쇼핑 리스트

책상 위 작은 정원

화분

책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만 올려도 분위기는 금세 달라진다. 초보 식집사라면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식물부터 장바구니에 담아 보자. 스투키,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몬스테라는 물 주기만 잊지 않으면 무난하게 잘 자라는 편이다. 초록 잎이 하나둘 늘어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책상 한 칸과 함께 나의 일상도 조금씩 정돈된다.

출근길의 기분 전환

가방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이 지루하다면 가방부터 가볍게 바꿔 보자. 단조로운 디자인도 키크링 하나만 더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작은 장식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산뜻하게 만든다. 물론 실용성도 중요하다. 외부 일정이 잦다면 가볍고 수납력이 넉넉한 가방이 제격이다. 노트북과 서류, 파우치까지 넣어도 어깨가 덜 무겁다면 하루의 컨디션도 달라진다.



나만의 아카이브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단순한 스케줄러를 넘어 나의 하루를 차곡차곡 담아 두는 보물상자다. 일정 관리부터 일기, 공부 계획, 취미 기록까지 쓰임새도 다양하다. 날짜형, 만년형, 비날짜형 등 선택지도 폭넓어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다. 요즘은 '다꾸(다이어리 꾸미기)'도 하나의 취미다. 스티커와 마스킹테이프, 색펜까지 함께 쇼핑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기록 세트가 완성된다.



1시간의 행복

도시락

도시락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오전의 피로를 털어 내는 작은 리셋 버튼이다. 뚜껑을 여는 순간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내가 고른 메뉴는 오후의 에너지를 채워 준다. 도시락통을 고를 때는 밀폐력과 분리 칸,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하면 활용도가 높다. 건강한 식사는 집중력과 체력을 동시에 키워 주는 기본 조건. 잘 고른 도시락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지켜 주는 '나만의 만족템'이 된다.



발끝의 자유시간

슬리퍼

사무실 슬리퍼는 어쩌면 동료보다 더 오래 함께하는 존재다. 그래서 무엇보다 '편안함'이 중요하다. 충격을 흡수해 주는 리커버리 슈즈나 쿠션감이 좋은 PVC 소재가 인기인 이유다. 가볍고 관리가 쉬워 사무실에 두기에도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책상 아래는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나만의 자유 구역. 단정한 출근룩 아래 숨겨 둔 귀엽고 개성 있는 슬리퍼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진다.



오피스 아이템 구입할 때 체크 포인트

1. 필수템 위주로 챙기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기보다 당장 필요한 기본 아이템만 먼저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해 보며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천천히 보완해도 늦지 않다.

2. 편리함을 최우선하기

하루 종일 써도 편안하지를 먼저 살펴보면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 디자인보다 무게, 착용감, 손에 잡히는 느낌처럼 실제 사용감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오래 쓰는 지름길이다.

3. 업무 환경에 맞춰 선택하기

내 업무 환경에 잘 맞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 수납공간, 휴대성, 소음 여부처럼 실제 사용 장면을 떠올려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Taste Note

글. 최행좌

동그란 알뿌리는 꼭 알사탕을 닮았는데 향은 매콤하고 맛은 알싸하다. 줄기에서는 부추의 향이, 알뿌리에서는 마늘의 풍미가 동시에 느껴지는 신통방통한 채소다. 몸에 열을 돋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 덕분에 '작은 마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달래는 겨우내 둔해진 입맛을 번쩍 깨우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뽕안 알뿌리와 가느다란 초록 줄기에는 봄기운이 통째로 담겨 있다. 작지만 존재감만큼은 '주연급'이다. 특유의 톡 쏘는 맛 덕분에 파, 부추, 마늘이 들어갈 자리에 대신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요리의 품격을 높여준다.

달래를 즐기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역시 최고는 달래장이다. 송송 썬 달래에 간장과 참기름, 통깨만 더하면 향긋한 한 그릇이 완성된다. 갓 지은 밥에 한 숟갈 올려 속속 비벼 먹어도 좋고, 구운 김에 싸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다. 한 번 맛을 들이면 젓가락이 멈추기 힘들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봄이라 입맛이 없다"라는 소리를 썩 들어가게 만드는 힘, 바로 달래의 마법이다.

입맛 저격수 '작은 마늘'



달래

향이 그윽한 썩은 『단군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허브다. 메마른 땅을 뚫고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미는 썩은 봄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채소이기도 하다.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온 어린 썩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기분이 든다. 좋은 썩을 고르고 싶다면 잎이 너무 크지 않고 줄기가 연하며, 향을 맡았을 때 코끝이 찡할 정도로 진한 것이 좋다. 그게 바로 봄의 정수를 품은 '썩' 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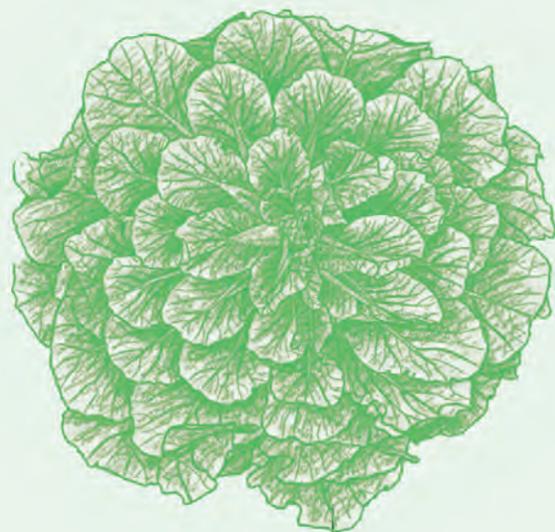
썩은 향이 강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의외로 어디든 잘 녹아든다. 떡으로 만들면 쫄깃한 식감과 향긋함이 배가되고, 말려서 차로 마시면 마음까지 차분해진다. 고기 요리의 잡내를 잡는데도 일등 공신이며, 된장찌개 마지막에 한 줌 톡 넣으면 평범했던 찌개가 갑자기 '명품 전골' 같은 포스를 낸다. 식탁 위에 초록색 생기와 건강한 에너지를 동시에 불어넣고 싶다면, 고민할 것 없이 썩이 정답이다.



단군신화부터 이어온 K-허브

썩

자연이 길러낸 봄의 맛 봄나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채소

봄동

이름부터 설레는 봄동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채소다. 좋은 봄동을 고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지개를 킁 킁 잎이 시원하게 벌어지고, 겉잎은 싱싱한 초록빛을 띠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배추처럼 밀동이 단단하고 속살이 노란색일수록 단맛이 터져 나오는 '꿀맛' 봄동일 확률이 높다.

봄동은 비타민 A와 무기질이 풍부한 대신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요리를 만났을 때 균형이 잘 맞다. 삼겹살을 싸 먹는 쌈으로, 입맛 돋우는 걸절이로도 궁합이 찰떡이다. 생으로 먹으면 아삭하고, 볶거나 튀겨도 영양 손실이 적어 조리법이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조리법도 세상 간편하다. 한입 크기로 뭉친 밥에 된장을 살짝 얹어 봄동으로 싸 먹으면 간단한 쌈밥이 되고, 봄동 잎을 부침옷을 입혀 노릇하게 부치면 향긋한 전이 된다. 잘게 다져 두부와 섞어 동그랑땡으로 만들어도 별미다. 손질은 쉽고 맛은 확실하니 나른한 봄날 식탁 위에서 자꾸만 손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겨울을 뚫고 올라온 어린 잎들이 식탁 위에 오르는 계절, 봄나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키워낸 보약이다. 제철을 맞아 영양은 물론 존재감까지 짙 채운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코끝을 간질이는 향긋한 풀내음, 듣기만 해도 침샘이 고이는 아삭한 식감! 봄 식탁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 미나리다. 연한 줄기를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은은한 향이 입맛을 돋운다. 잎이 싱싱한 초록빛을 띠고 줄기가 너무 굵지 않으며, 톡 꺾었을 때 수분이 촉촉하게 배어 나오면 합격! 그게 바로 신선한 미나리다.

청도미나리는 알아도 물미나리, 돌미나리는 의외로 헛갈릴 수 있다. 물미나리는 논에서, 돌미나리는 습지나 밭에서 자란다. 영화 <미나리>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것도 돌미나리다. 조리법도 간단하다. 초고추장에 무쳐 상큼한 무침으로 먹거나, 부침가루를 입혀 전으로 부치면 향긋한 한 접시가 완성된다. 잘게 썰어 김밥이나 비빔밥에 넣어도 좋다. 한 단만 있어도 밥상 분위기를 확 바꿔 주는 미나리, 이 정도면 요리계의 조연급 주연이다.



봄 식탁의 신스틸러

미나리

오늘도 한 뼘 더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는 늘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실수하며 배우기도 하고, 도전하며 영역을 확장하기도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요즘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작지만 확실한 Grow의 장면을 포착해본다.

응답자 수 1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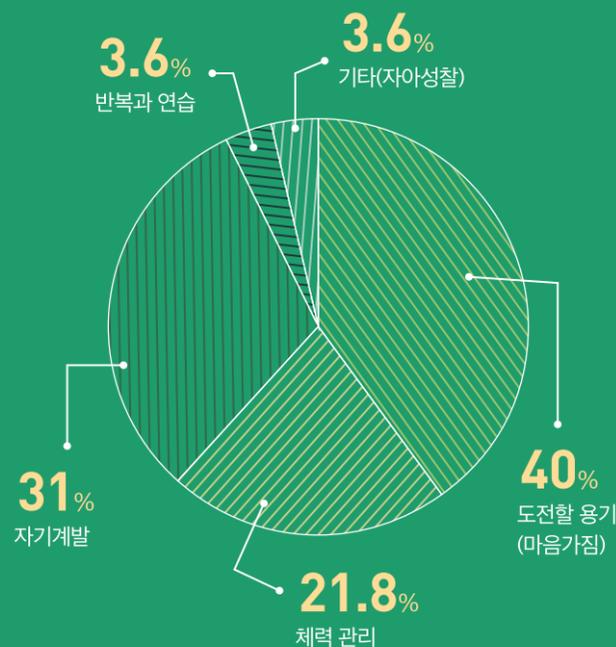
'Grow'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나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느 날 문득, 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체감했던 경험

앞에 나서는 걸 정말 무서워 하던 제가 어느 순간 부서 활동 MC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 나도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수자원개발처 정수연

아들이 군 입대하던 날, 언제 이렇게 등직해졌나 싶다가도 "이제 다 컸네"라며 웃으며 배웅했죠. 그 순간,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경기동남권지사 정명호

자유롭게 지내던 친구가 목표를 세워 사회복지사로 취업한 걸 보며 많이 놀랐어요. 결국 마음먹는 순간이 진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섬유역협력단 김효욱

저와 같은 때 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어요. 시간도 흘렀고, 저도 그만큼 경험이 쌓였구나 싶더라고요.

금강유역협력단 이수빈

업무 외에도 올해 내가 확장해보고 싶은 분야는?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가 보고 싶어요.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사이로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 세상도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수변사업처 김병재

집 평수를 확장해 보고 싶네요. ㅎㅎ 그만큼 제 삶도 한 평쯤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연천포천권지사 우해민

5년 전 준비했던 토익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영어를 꾸준히 해두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고 믿고 있어요.

안동권지사 김지수

'AI 챔피언 블루' 인증을 받고 싶어요. 올해는 저도 사랑 한 팀입니다!

물환경계획처 김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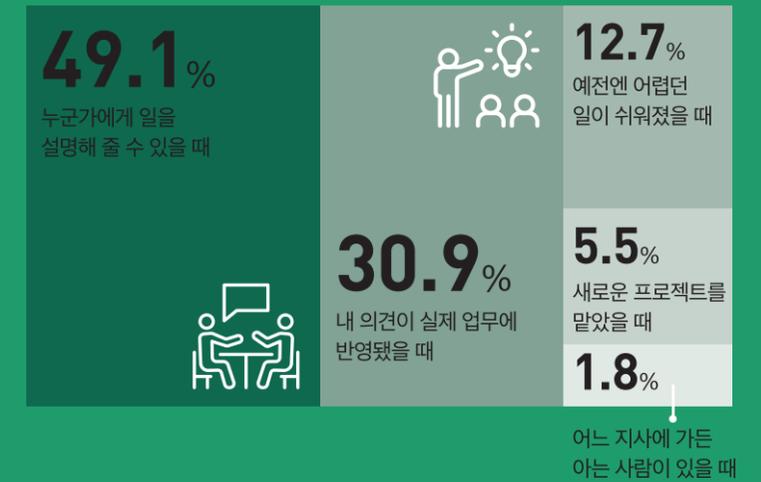
배드민턴이 취미인데요, 올해는 실력이 확 늘었으면 좋겠어요. 셔틀콕이 제 말 좀 잘 들으면 좋겠네요.

나주수도지사 홍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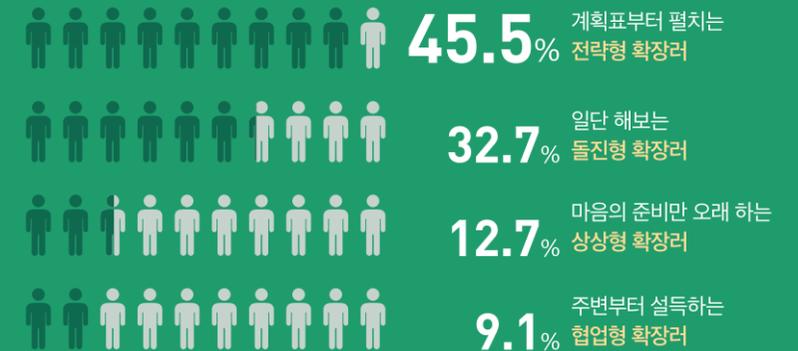
건강을 위해 주짓수 같은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고 싶어요. 굴러도 보고, 넘어져도 보면서 몸과 멘탈 둘 다 업그레이드하려고요.

K-water연구원 전유호

'회사에서 내 영역이 확장됐다'고 느끼는 순간은?



나의 업무 확장 스타일



Z세대에게 사랑받는 ‘리퀴드 콘텐츠’의 비밀



Z세대에게 선택받는 콘텐츠의 특징

현재 Z세대의 콘텐츠 소비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튜브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에서도 20대가 최근 1년 이내 즐기게 된 콘텐츠로 ‘유튜브 (60.0%, 1위)’를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대 10명 중 8명(83.0%)은 유튜브 콘텐츠의 구간이나 재생 속도 조절,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템포에 맞게 자유자재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Z세대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Z세대에게는 내가 어떤 속도로, 얼마나 오래, 언제 집중하고 어떤 대목에서는 흘러들어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콘텐츠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었다. Z세대가 24시간 콘텐츠와 함께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Z세대는 밥을 먹을 때도, 외출 준비를 할 때도, 공부할 때는 물론 심지어 잠잘 때까지도 콘텐츠가 일상의 틈을 빠르게 채운다. 하지만 매 순간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이 곧 매 순간 몰입한다는 뜻은 아니다. 20대가 유튜브를 즐겨보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도 ‘따로 시간 내지 않고 틈틈이 즐길 수 있어서(40.0%)’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여가 활동보다 저렴해서(33.3%)’, ‘계속 집중하거나 쉼겨보지 않아도 되어서(32.5%)’가 뒤를 이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등 부담이 적고, 몰입 시점과 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며, 일상의 빈틈을 채우듯 유연하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야구장과 전시회에는 있는 ‘이것’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튜브나 SNS 콘텐츠를 비롯해 전시회, 박람회, 야구장 등의 오프라인 콘텐츠들이 Z세대의 선택을 받고 있다. ‘야구 엄청 길지 않나?’, ‘전시회도 몰입해서 보는 콘텐츠 아닌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지만 앞선 콘텐츠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야구의 경우 전체 경기 시간은 길지만 매 순간 모든 경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야구를 보면서 음식을 먹거나 응원가를 부르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등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전시도 비슷하다. 한 Z세대는 “친구와 함께 전시회에 가더라도 각자의 속도에 맞춰 따로 감상한다”라고 대답했다. 취향에 맞는 작품이 있다면 해당 작품에 더 오래 머물기도 하고, 내 입맛대로 동선을 짜서 관람할 수 있다. ‘정해진 흐름’에 따라가는 관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템포’를 직접 설계하는 콘텐츠인 셈이다.

Z세대의 콘텐츠 소비 행태는 독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독서’라고 하면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요즘 Z세대의 독서 방식은

Z세대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도파민을 충전하다가도 인간미 넘치는 콘텐츠를 보며 낭만을 찾고, 1분 내외의 숏폼에 몰입하는가 싶더니 1시간이 넘어가는 <풍향고>와 같은 콘텐츠를 ‘밥친구’라며 찾아서 감상하기도 한다. 콘텐츠의 형식이나 장르만으로는 Z세대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다. 요즘처럼 취향이 극도로 세분화된 초개인화 시대에는 선호하는 주제, 장르, 유형이 각자의 기호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선택 기준을 확인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Z세대의 선택을 받고 있는 콘텐츠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조금 다르다. 최근 주목받는 ‘병렬 독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번갈아 읽는 독서 방식으로,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완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템포에 맞게 독서를 즐긴다. 흥미가 떨어지면 중간에 다른 책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이처럼 소비 방식이 유연해지면서 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완화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인식되고 있다.

정리하면, 지금 선택받는 콘텐츠들의 공통점은 사용자가 자신의 흐름에 맞게 소비할 수 있고 몰입을 강요받기보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성세대에게 콘텐츠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었다면 요즘 Z세대들은 마치 콘텐츠를 배경처럼 흘러보내듯 소비하는 것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물처럼 유연하고 느슨하게 Z세대의 일상을 흐르는 콘텐츠를 ‘리퀴드 콘텐츠’라 정의했다.

Z세대가 콘텐츠를 ‘찍먹’하는 이유

콘텐츠 과잉의 시대, Z세대는 한정된 시간을 더 알차고 가치 있게 향유하기 위해 소비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 리퀴드 콘텐츠로 일상의 여백을 채우며 하나에 깊게 파고들기보다 넓고 가볍게 ‘찍먹’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소비하며 빠르게 전환한다. 이는 콘텐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라이트하게 덕질하는 검덕 문화나 월데이 클래스·취향 기반 모임 같은 라이트한 경험, N잡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바운더리를 확장하는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변화 속도가 빠른 지금, Z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단일한 성공 방정식이나 정답이 없다. 직업과 삶의 방식은 분화되고, 기술과 트렌드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며, 그 앞에 놓인 선택지 역시 훨씬 많아졌다. 이런 환경 속에서 Z세대는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 수많은 선택지 중 더 나은 선택을 내리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선명하게 아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Z세대가 콘텐츠와 경험을 라이트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하나에만 깊게 올인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가볍게 ‘찍먹’하며 나와 맞는 것을 찾아가는 전략인 셈이다.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수평적 확장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들로 일상을 채우는 Z세대의 선택을 받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몰입을 전제하기보다는 언제든 켜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볼 수 있는 ‘일상을 흐르는 콘텐츠’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다시 일어날 용기 '역주행의 신화'

가수 황가람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컸다. 호소력 짙은 음색과 감성적인 가사는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 가수 황가람의 목소리로 듣는 '나는 반딧불'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선물같이 다가왔다. 그는 "진심을 다하면 결국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무명의 긴 시간을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요즘"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반딧불의 노래

오랜 무명시간의 설움을 견뎌내고, 음악 하나로 모두에게 힐링을 주는 가수. 무엇보다 '나는 반딧불'의 가사는 어린아이는 물론 취업 준비로 힘든 2030세대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5060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힐링송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카페 혹은 공원에서 제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다니. 가끔은 바로 제 옆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 분도 있었죠. 오랜 시간을 잘 지내고 나니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웃음) 아직도 꿈만 같아요. 무엇보다 이 노래를 듣고 감동받고, 아파하고, 위로받은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빛나는 별 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품어져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계신 모든 분이 저에게는 빛나는 별이에요"

14년 만의 일이었다. 2020년 밴드 중식이를 통해 빛을 본 '나는 반딧불'은 황가람이라는 무명 가수의 목소리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히트작이 됐다. 2008년 데뷔한 그도, 앞서 먼저 공개된 '나는 반딧불'도 때가 있었던 것 같다. 기다림 끝에 맞은 황홀함하기에 이 곡에 대한 고마움은 클 수밖에 없다.

"노래가 알려지고, 다양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게 되면서 수입도 생겼죠. 노숙을 했던 과거는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요. 최근 가족들과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첫 해외여행도 했어요.



모든 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이에요. 2년 가까이 집에 가지 못했는데, 덕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인생역전에 성공한 가수가 됐고, 얼마 전에는 팬 미팅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에게 "반딧불과 닮은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던지자 "닮았어요" 라면서 "가수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와 닮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운명같이 왔기 때문인지 정말 닮았죠. 힘들고 지쳤던 어두웠던 시절 반딧불처럼 빛을 봤으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낮에는 누가 보면 벌레 같은데, 밤에 보면 빛나는 게 보이는 점에서 닮은 것 같아요"라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자신의 노래를 통해 감동받고, 아파하고 위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게 거듭 감사하다는 가수. 노래의 힘을 많이 느낀다며, 히어로물 에 나오는 영웅들만큼이나 힘이 센 것 같아서 지금의 시간에 더욱 감사하다는 사람.

"사람들에게 용기를 낼 힘을 주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가사처럼요. 세상의 기준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해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황가람=희망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어요. 하루하루가 특별한 것 같은데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황가람이라는 가수를 찾아 주고, 다양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음에 행복해요. ‘나에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아직도 꿈만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의 떼창이었어요. 2년 전 강화도 길상초등학교의 독서캠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생들이 가사를 다 외워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노래를 하기 정말 잘했구나’ 속으로 몇 번을 생각했죠. 노래를 부를 가수도, 듣는 관객들도 모두 위로와 공감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 서울에서 147일간의 노숙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더 오래 (노숙을) 했어요.(웃음) 부모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서울에서 147일을 지낸 뒤 이듬해 다시 올라와 또 다시 노숙을 한 뒤에야 작업실을 구했죠. 일단 열심히만 하면, 누군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알고 지낸 형들도 있어서 여기저기서 하룻밤씩 잠을 청하기도 했죠. 완벽한 노숙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르바이트도 이때 많이 했어요. 호떡 장사, 신약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시절이 제게 슬픈 시절은 아니었어요. ‘난 서울에서 가수를 할 거니까’라는 생각 하나로 가득 찼던 시절이니까요. 다시 할 수 없이 힘들었고 돌아보면 아찔하지만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이었기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었지만, 노래는 달랐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계속 잘 하고 싶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노래를 잘하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놓지 않았죠. 부족함을 갖고 있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 부르는 노래였기에 더 사랑받지 않았을까요?

🎤 3월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요.

제 이름이 붙은 <2026 황가람 콘서트: 나는>이라는 공연을 해요. 정말 꿈만 같죠. 지금의 황가람을 있게 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어요. 무대로 올라갈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낼 힘을 주고 싶어요. 물론, 저도 언젠가 내려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래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고 더 크게 응원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울고 웃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다면.

물 역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없어서 절대 안 되는. 가수 황가람에게 있어 노래가 물 같은 거였어요. 이러한 점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분들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국민의 마실 물을 책임지고 있고, 덕분에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는 물을 마시며 생활하고 있죠. 제가 노래로 감성적인 위로와 위안을 드린다면, 한국수자원공사 덕분에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노래일 것 같아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됐나요?

MBN <오빠 시대> 출연이 시작이었어요. 원곡자인 중식형과 인연이 돼 탄생한 리메이크 곡이죠. 당시 형이 저를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나는 반딧불’을 커버해 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정성을 다해 불렀어요. 그걸 촬영해서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고, 역주행 신화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제가 ‘얼마쯤에 내 꿈이 포기가 될까’를 형에게 부탁드리며 서로의 곡을 주고받는 기회가 왔죠. 이후 ‘나는 반딧불’을 음원으로 발매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 곡이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시간이지요. 중식형과는 서로 “이건 네 노래다”, “이건 형 노래예요”라고 웃으며 말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 황가람의 목소리는 대중에게 위안을 주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저는 원래 노래를 못 불렀어요. 때문에 일찍 가수가 못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저 음악이 좋았죠. 원래 태권도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어요. 태권도는 재미가 없어서



수타벅스가 간다

글. 최행좌 사진. 황지현 영상. 이덕재



소양강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자들 강원수열사업단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건 아무도 밟지 않은 땅 위에 첫발을 내딛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다. 그 대단한 도전이 지금 소양강댐에서 펼쳐지고 있다. 물로 미래의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 강원수열사업단의 이야기다. 그 현장에 수타벅스가 달콤한 응원을 신고 찾아왔다.



국내 최초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수열에너지는 물이 지닌 '온도 차'를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의 성질을 이용해 냉난방에 쓰이는 방식으로, 하천이나 댐, 강, 바다에 저장된 열을 직접 혹은 히트펌프로 변환해 활용한다. 특히 소양강댐의 심층 냉수는 연중 약 7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해 수열에너지 활용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손꼽힌다. 그래서일까. 소양강댐 일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앞으로 이곳에는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까지 들어설 예정. 지금 현장에는 거대한 크레인과 불도저, 굴삭기가 쉼 없이 움직이며 부지 조성과 기반 공사를 진행 중이다. 흙을 다지고 배수관로

를 정비하는 분주한 현장의 중심에는 강원수열사업단이 있다. 2023년에 신설된 이 부서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든든한 컨트롤 타워다. 보상부터 토목, 기계, 전기,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의 능력자 14명이 모여 팀을 이룬다.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더해지니 자연스레 붙은 별명은 '에이스 팀'. 이름처럼 일도 척척, 호흡도 착착이다. 한길 차장은 사업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그 열로 인해 데워진 온수는 다시 스마트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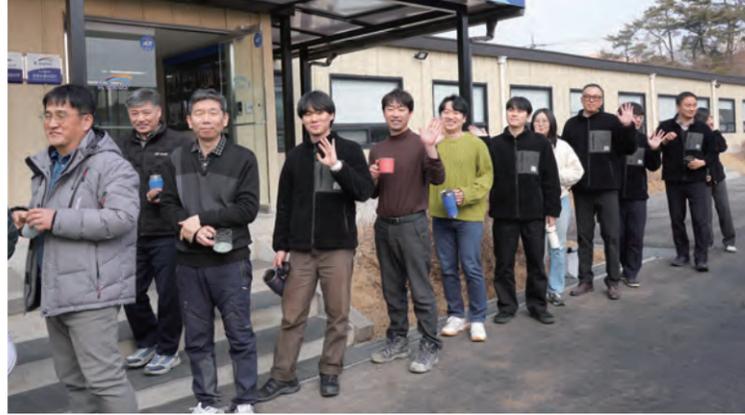
수타벅스가 간다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열을 활용하면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열을 식히고, 다시 쓰고, 또 순환하는 구조다. 물이 곧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곧 미래가 되는 순간이라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현장

강원수열사업단의 하루는 늘 안전에서 시작해 안전으로 끝난다. 현장에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일도, 현장의 작은 변화 하나를 살피는 일도 기준은 단 하나, 안전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CCTV 같은 첨단 안전기술이 적용되며 현장의 안전은 한층 더 촘촘해졌다.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덕분에 공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준혁 사원은 “조성사업 현장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시공·품질·안전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공사와 감리단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면서 계획된 기한 안에 조성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죠”라고 말한다. 이들 덕분에 현장은 오늘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높은 완성도와 두터운 신뢰도 그 결과다. 그래서인지 김동구 단장의 눈빛에는 직원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다. “조성사업은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해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높은 책임감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고 있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리더의 따뜻한 한마디는 현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동력.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오늘도 단단한 기반이 된다.

두쫘꾸와 함께 즐겨 봄

올해 춘천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웠다. 눈과 비, 강풍까지 이어지며 현장 직원들의 고생도 적지 않았다. 이들을 위해 김정은 사원이 수타벅스 이벤트를 신청했다. “곳은 날씨를 함께 버텨 낸 만큼 봄에는 꽃길 같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에 수타벅스를 신청했어요” 작은 이벤트 하나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 마음. 그 진심 덕분에, 현장에는 금세 웃음이 번졌다. 이날 준비된 간식은 요즘 가장 핫한 디저트, 두바이쫘꾸키(두쫘꾸). 박진형 대리는 “사실 단 걸 즐기는 편은 아닌데, 커피랑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라며 웃었고,

이소미 대리 역시 “수타벅스 덕분에 품질대란이라는 두쫘꾸를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왜 사람들이 두쫘꾸, 두쫘꾸 하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매력 있네요”라며 인증샷까지 남겼다. 양미란 과장도 “팀원들이랑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잠깐의 커피 한 잔, 달콤한 쿠키 한 조각. 거대한 공사 소음 사이로 스며든 이 짧은 휴식은 얼굴에 미소를, 마음에는 여유를 남겼다. 실 틈 없이 돌아가던 현장 한가운데, 그렇게 봄이 한 모금 내려앉았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강원수열사업단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Mini-Interview



김동구 단장

직원 한 명 한 명이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힘차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강원수열사업단이 가장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한길 차장

국내 최초의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큰데요. 일에 몰두하느라 정신없이 하루가 훌쩍 지나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수타벅스 덕분에 여유를 찾는 하루가 된 것 같아요.



김정은 사원

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잖아요. 수타벅스를 통해 잠시라도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어요. 다 함께 따뜻한 커피와 달달한 간식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끝나지 않는 재해, 산불과 홍수

기후가 흔들리자 재난의 순서도 달라지고 있다. 산불은 더 자주, 더 넓게 번지고 그 뒤에는 어김없이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진다. 타버린 숲은 더 이상 비를 붙잡지 못하고, 물은 새로운 길을 찾아 삶의 경계까지 밀려온다.

불과 물이 교차하는 이 연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재난을 따로 떼어 볼 수 없게 되었다. 숲의 변화가 곧 물의 변화로 이어지는 시대, 자연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일이 곧 미래를 대비하는 첫걸음이 되고 있다.



재난의 시작 '대형 산불'

이상기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봄과 가을의 경계는 흐려졌고, 여름은 길어졌으며, 겨울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불'이라는 재난이 있다. 숲이 타오르는 장면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풍경이 되었다. 자연은 마치 오래된 균형을 잃은 듯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오래 타오르는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다.

산불 발생 면적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산불 발생 면적은 약 11.9만km², 2024년에는 13.5만km²로 늘어났으며, 2025년 상반기만 이미 12만km²가 불에 탔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면적이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다. 동시에 자연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산불은 이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계절이 되었고, 재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산불 피해의 60% 이상은 고위도 침엽수림에서 발생하지만, 온대와 아열대 지역 역시 안전하지 않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의 불균형, 장기화된 가뭄이 숲을 마른 장작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다. 생명을 품던 숲이 점점 '잘 타는 연료'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이고, 특히 침엽수림의 비율이 높다. 이는 푸른 숲을 자랑할 수 있는 장점이자 동시에 산불 위험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약 1,000km²에 이르는 피해를 남기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이례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이 겹치며 불길은 견잡을 수 없이 번졌다. 숲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를 잃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토양의 구조를 바꾸고, 공기를 오염시키며, 동식물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재난이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태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오랜 시간 이어진다. 재난은 불이 꺼진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 속에서 다시 시작된다.

전 세계 산불 발생 면적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산불 위험 전망



UNEP 전 세계 산불 발생 증가 전망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산불 위험도는 향후 수십 년 사이 최대 158%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불 발생이 14%, 2050년에는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풍경이다. 불길은 더 자주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흔적 위에서 새로운 대응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연쇄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

숲은 거대한 스펀지와 같다. 나무의 잎과 가지, 토양은 빗물을 머금고 천천히 흘려보내며 물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나 산불이 지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을 품지 못한 숲에서는 작은 비도 큰 물이 되고, 하천은 순식간에 불어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물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홍수와 산사태다. 나무의 뿌리는 본래 흙을 단단히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산불 이후에는 그 기능이 약해진다. 흙은 쉽게 쓸려 내려가고, 물은 길을 찾지 못한 채 도시와 마을을 향해 몰려든다. 하나의 재난은 또 다른 재난을 부르는 '연쇄 재난(Cascading Disasters)'이 만들어지는 이유다. 호주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2019~2020년 약 8.4만km²에 달하는 초대형 산불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5조 원과 5조 원 규모의 홍수 피해가 이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역시 산불 뒤 홍수와 토석류가 발생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불과 물은 다른 재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산불과 홍수의 인과관계를 자연실험으로 규명

이러한 흐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시드니대학교,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진행해 대형 산불 이후 산림이 소실된 지역에서는 극한 홍수 발생 위험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산불이 단순히 숲을 태우는 사건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시대의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숲의 상태를 살피고, 물의 흐름을 예측하며, 재난의 연결

고리를 미리 끊어내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불을 막는 일은 곧 물을 지키는 일이며, 물을 관리하는 일은 결국 삶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은 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변하고 있다. 불은 하늘로 치솟고, 물은 땅을 파고든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균형을 찾아야 한다. 재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 파장을 줄일 수는 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자연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일지도 모른다.



Water&Tech INSIGHT 카카오톡 채널 안내

K-water연구원에서 발간되는 'Water&Tech INSIGHT'를 편하게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K-water연구원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물, 우리의 약속 2026 세계 물의 날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다. UN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며 지정한 날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당연하게 흐르는 물. 그 한 방울에는 자연의 긴 시간과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겨 있다. 오늘 하루만큼은 물을 '고맙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흐를 수 있도록.

물이 전하는 약속, 세계 물의 날

지구엔 '푸른 행성'이라 불리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물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전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물 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그래서 제47차 유엔 총회는 1992년 12월 22일 결의안을 통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고, 1993년부터 전 세계가 이를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행동하는 날'에 가깝다. 유엔은 매년 주제를 정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물 보호를 위한 실천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분명 변화가 생긴다는 믿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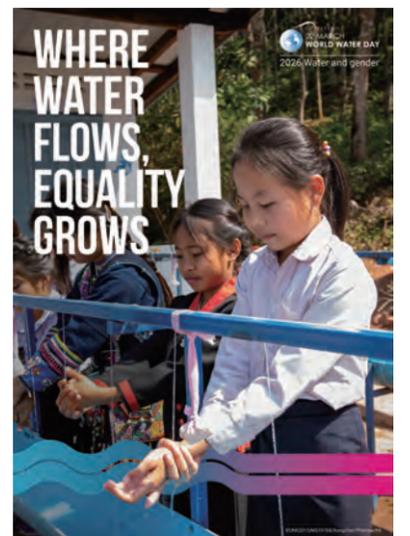
모두에게 공평한 물을 위하여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젠더(Water and Gender)'이다. 누구든,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물 부족과 위생 문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거나, 물 분배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2026년 세계 물의 날 캠페인은 '권리 기반의 접근'을 강조한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깨끗한 물 한 컵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걸어야 만날 수 있는 생존의 조건일지도 모른다. 물의 접근성과 안전성은 곧 교육과 건강, 경제 활동, 그리고 삶의 존엄과 맞닿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양치할 때 물을 잠그는 습관, 물 절약에 대한 관심, 물 정책과 인프라에 대한 지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 모여 모두에게 공평한 물의 미래를 앞당긴다. 물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가기 때문이다.



Newsroom

2026 March Vol. 696



01

봄철 가뭄 대비 안정적 물 공급체계 전반 점검

최근 강원 동해안 지역에 건조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윤석대 사장은 지난 1월 30일 강원 남부권(태백·삼척·정선)의 주요 식수원인 삼척시 광동댐을 방문해 저수 현황을 확인하고, 물 공급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영동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뭄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저수율과 취수시설 운영 현황, 가뭄 단계별 용수 공급 시나리오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예년보다 한발 앞선 공급체계 점검과 선제적 용수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비상 취수시설 가동 태세 점검, 골지천 등 인근 하천수 활용 방안 마련, 관정 개발 및 이동식 급수차량 사전 배치,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단계적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 강릉 연곡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조성 에 착수하는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물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밀 분석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뭄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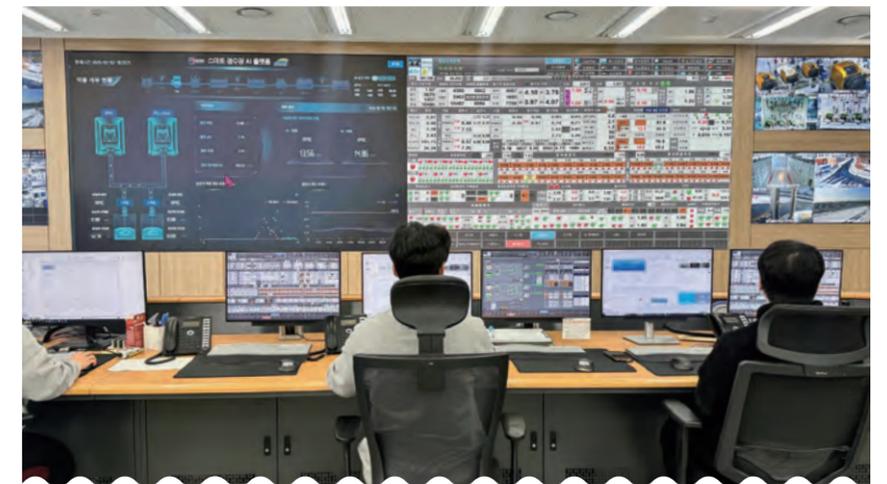
AI 정수장,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안(CD) 승인을 받았다. 지난 1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ISO 상하수도 서비스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AI 기반 상수도 관리 가이드라인(ISO 25288) 위원회안(CD) 승인으로 사실상 최종 관문인 질의단계(DIS) 진입이 확정되었다.

이번 성과는 2024년 신규 과제 제안(NP) 승인과 지난해 7월 작업초안(WD) 승인에 이은 것으로, 약 6개월 만에 거둔 결실이다. 위원회안은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하는 핵심 단계로, 41개 회원국 전문가의 만장일치 승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한국의 AI 물 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단계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최종 국제표준 제정까지는 공식 투표 절차만 남았다. 국제표준이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물관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I 정수장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수처리 전체 공정을 자율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화성 정수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4년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으로 확대 구축을 완료했으며, 연간 94억 원의 운영비 절감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0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9일 대전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창업지원공간 W-브릿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상을 수상하며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상은 동반성장 의지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에 수여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AA)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 역시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 온 노력의 결과다.

특히 2022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해 ESG 진단과 지표 설정,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현장 개선 지원 등 물 분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총 6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60개 기업이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기술협력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후테크 생태계 전반의 상생과 혁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04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부문 Top 3 달성

지난 2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부문 Top 3에 올랐다. 이로써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직원 설문을 기반으로 한 신뢰경영지수(75%)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는 문화 평가(25%)를 합산해 산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뢰경영지수 91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다. 2024년 노사 공동 저출생 극복 선언을 계기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전면 확대했으며, 기존 유연근무제·육아시간·자녀 돌봄 휴가 제도를 한층 고도화했다. 또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족애(愛) 행복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원 정책도 다양화했다.

아울러 사내 부부의 동일 생활권 근무를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부서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비스포크(Bespoke)’, 계층별 조직융화 프로그램 ‘블렌딩(Blending)’, 무기명 소통 채널 ‘톡톡수(水)럼’ 등을 운영하며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시간이 깎아 만든 바다의 조각상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경주 하면 불국사나 대릉원 같은 유적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차를 몰아 동해로 향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왕릉 대신 바다와 바람, 그리고 마치 누가 조각칼로 다듬은 듯 각진 바위들이 반겨주는 곳.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은 그렇게 '시간의 단면'을 드러낸 채 여행자를 멈춰 세운다.

돌과 파도가 만든 '바다 정원'

주상절리는 주로 화산암 지대에서 볼 수 있는 육각형 돌기둥 형태의 바위 지형이다. 뜨거운 용암이 식으며 수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갈라져 만들어진다. 제주도과 울릉도, 포항 등지에서 볼 수 있지만 경주는 좀 더 특별하다.



Water Lounge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이하 양남 주상절리)은 오랜 기간 해안 군사작전 지역으로 묶여 있어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가 2009년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비로소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덕분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시간이 온전히 보존되었고, 여행자들은 그 세월의 걸을 그대로 마주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검은 현무암 기둥들이 빼곡히 늘어난 풍경이다. 거대한 오르간 같기도 하고, 누군가 정성껏 쌓아 올린 성벽 같기도 하다. 위로 곧게 솟은 절리, 부채처럼 펼쳐진 절리, 한쪽으로 기울어진 절리, 바닥에 누운 듯한 절리까지 형태도 다채롭다. 말 그대로 '주상절리 박물관'이다.

대부분의 주상절리는 수직 기둥 형태로 발달한 데 비해 이곳은 수평 방향의 절리가 흔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풍경을 만든다.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역겹의 시간 동안 깎이고 다듬어진 기묘한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해 질 무렵 붉은 노을이 바다에 내려앉으면, 양남 주상절리는 마치 3D 입체 조형물처럼 또렷해지고, 자연이 빚은 조각 전시장이 펼쳐진다.



자연 조각상의 고요한 관람석

양남 주상절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단연 전망대다.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는 압도적인 높이로 다가오던 기둥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규칙과 리듬을 가진 무늬처럼 보인다. 자연이 만든 기하학적 패턴이 얼마나 정교한지 새삼 놀라게 되는 순간이다. 전망대 4층 창가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오래 머물게 되는 자리다. 이곳은 단순히 높기만 한 게 아니라 부채꼴 주상절리를 가장 완벽한 각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명당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전 식어가던 용암이 동해의 파도와 바람에 다듬어지며 만들어낸 독특한 곡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이 만든 작품'이라는 말이 절로 실감 난다.

그래서인지 사진을 몇 장 찍고 돌아서려다 한 번 더 바다를 바라보게 된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결국 한참을 서 있게 된다.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져 윤슬을 만들 때면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바다멍'에 빠지게 된다.

파도 소리 따라 걷는 길

양남 주상절리를 곁에 두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이다. 경주시 하서리와 읍천리 사이 약 1.7km의 해안 산책로로, 전망대를 내려서는 순간부터 여행의 속도가 달라진다. 이 길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할 종착지도, 놓치면 아쉬운 필수 코스도 없다. 대신 파도 소리가 길 전체의 배경음악이 된다. 나무 데크를 따라 걷다 보면 왼쪽에는 바다, 오른쪽에는 바위 절벽이 평행선처럼 이어진다. 발밑에서는 '탁, 탁' 나무가 울리고, 앞에서는 '쌩' 파도가 밀려온다. 서로 다른 소리가 겹치며 묘한 리듬을 만든다.

양남 주상절리는 화려하지 않다. 대신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 각진 바위와 하얀 파도,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 생각들도 바위처럼 차분하게 정리되며 시야 또한 넓어진다. 어쩌면 마음의 각이 잡히는 기분이 들지도.



경주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 A**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498-13
- H** 09:00~18:00(17시까지 입장)
- F** 무료
- T** 054-775-6366

호주와 솔로몬제도에서 깨달은 수자원의 중요성



김리안
한국경제신문 기자

기자로 일하면서 '자원'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써왔습니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자원까지. 경제신문 기자로서 자원은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씨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대해 인식이 분명해진 계기는 2022년 국제부에 있을 때였습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이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을 재가동하는 흐름은 에너지 자원이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에너지와 자원을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에너지자원 관련 학부에서 경제학 석사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오랜만에 다시 배운 '다이아몬드와 물의 역설'은 수자원을 대하는 저의 안일한 시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은 값이 매우 싸고, 없어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왜 그토록 비쌀까요? 경제학은 이를 '한계효용'으로 설명합니다. 물은 존재량이 풍부해 마지막 한 단위에서 얻는 만족감이 낮지만, 다이아몬드는 그 희소성 때문에 마지막 하나가 주는 효용과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 타들어 가는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 그때도 다이아몬드를 원할까요?" 교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물은 산업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거대한 바탕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가치를 한 번도 최상위 순위에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다시금 반성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벽히 구비된 한국에서 물은 늘 그 자리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전제조건이라 믿었기에, 그것이 고갈되거나 부족해질 수 있는 '전략 자원'이라는 생각은 깊이 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에서 물은 언제, 어디서든 틀면 나온다"라는 전제는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발전소가 멈춰 서고,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한정된 용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제 물은 더 이상 당연한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실감했던 순간은 지난해 11월 솔로몬제도와 호주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제도에 가기 전 들른 호주 퀸즐랜드주에서는 단순히 물을 쓴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을 넘어, 물 자체를 하나의 권리처럼 할당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와도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권에는 분명한 프리미엄이 붙었고, 그 권리는 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가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는 물이 이미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방문한 솔로몬제도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산속 우물을 오가며 물을 구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봤구요. 정확되지 않은 하수가 연안을 오염시켜 주민들은 해수욕조차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물을 너무나 당연하고 값싼 자원으로만 여겨왔습니다. 물 부족은 그저 일시적인 천재지변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의 물은 다릅니다. 한 번 결핍을 경험하면 산업과 일상이 동시에 마비되는 치명적인 자원입니다. 이제 다이아몬드와 물의 역설은 교과서 속 비유가 아닙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재인 동시에, 이제는 '희소성'까지 갖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 논란에서 시작된, 자원에 대한 저의 고민은 결국 물이라는 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다뤄지기 시작한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잉카문명이 시작된 티티카카 호수

하늘과 가장 가까운 물 위에서 한 문명이 시작되었다. 티티카카 호수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태양과 신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포개진 거대한 이야기의 무대다. 한 호수에서 태어난 빛이 어떻게 제국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신비로운 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잉카 문명이 시작된 호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닿기 훨씬 전, 안데스 산맥에는 이미 거대한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교한 석조 도시 마추픽추를 남긴 잉카 문명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출발점에는 한 호수가 등장한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티티카카 호수(Lake Titicaca)다. “이게 호수야, 바다야”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배가 오갈 정도로 넓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라는 타이틀도 지녔다. 잉카인들에게 이곳은 태양신 인티(Inti)의 숨결이라 여겨졌고, 호수는 오래도록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전설은 물결처럼 퍼져 나가 문명과 제국을 세운 씨앗이 되었다. 인티는 태양과 빛, 생명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존재였다. 어느 날 혼돈에 빠진 세상을 내려다본 그는 인간에게 문명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티티카카 호수의 ‘이슬라 델 솔(Isla Del Sol)’에서 아들과 딸을 탄생시켰다. 바로 첫 잉카의 황제가 된 망코 카팍(Manco Cápac)과 그의 누이 마마 오클로(Mama Ocllo)다. 인티는 두 남매에게 황금 지팡이를 건네며 특명을 내렸다. “안데스 고원을 걸으며 이 지팡이로 땅을 찢어 보아라. 지팡이가 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곳이 너희가 세울 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말에 따라 남매는 호수의 황금빛 물결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 망코 카팍은 힘과 용기를, 마마 오클로는 지혜와 질서를 맡았다. 그들은 험준한 안데스 고원을 넘으며 농사짓는 법, 집을 짓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수많은 산을 넘고 고난을 겪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장엄한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계곡에 도착했다. 망코 카팍이 평소처럼 지팡이를 땅에 꽂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스르륵”

하며 무거운 지팡이가 마치 솜사탕 속에 박히듯 부드럽게 땅 밑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잉카의 심장 ‘쿠스코(Cusco)’라 전해진다. ‘세계의 배꼽’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부터 잉카제국의 혈맥이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태양신의 또 다른 선물

인티의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인간에게 계절의 비밀도 알려 주고 싶었다. 그래서 하늘의 불씨를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여름의 태양이 되어 곡식을 익게 하고, 하나는 겨울의 햇살이 되어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 주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사람들의 심장 속에 남겨 두었다. 이름하여 ‘희망’. 잉카인들은 해가 가장 짧아지는 날이면 “태양이 힘 빠진 거 아닐까” 걱정하며 인티에게 제를 올렸고,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면 “태양이 부활했다”라며 축제를 열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티 라이미(Inti Raymi)’ 축제다. 이때 사람들은 티티카카 호수에서 두 손을 들어 태양을 향해 인사한다. 황금빛 의상을 입은 사제들이 의식을 올리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다. 북과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춤과 노래가 호수 위로 퍼져 나간다. “인티, 올해도 우리를 비춰 주세요.” 잉카의 후손들에게 티티카카 호수는 단순한 물의 공간이 아니다. 하늘의 태양이 땅에 문명을 내려보낸 출발점이자, 신화와 제국이 끊임없이 확장된 원점이다. 지금도 이들은 그 빛 속에서 인티의 기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한다.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K-수포츠
뭉쳐서 뭐하니?

조원희 선수에게
한수 배우기

#조원희선수 #K-수포츠
#주짓수레슨



블로그

샐레는 봄맞이!
겨울옷 관리 꿀팁



#봄맞이준비 #겨울옷정리
#패딩보관 #코트관리



X(트위터)

심장이 쿵하는 순간은?
나는 이럴 때 심쿵한다!



#직장인공감 #심쿵버튼 #직장에피소드



페이스북

ESG 상생을 이룬 성과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대한민국동반성장 #ESG경영
#대상수상



인스타그램

물 마실 때 어떤 타입?
나의 물비티어는?



#벌컥벌컥 원샷 #빨대로 조심히

<물, 자연 그리고 사람>

3월호 이벤트 안내

Vol.696

EVENT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3월호 사보 또는 웹진, 블로그를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접수 마감일 3월 20일

선물 발송일 3월 31일



참여하기

EVENT 2



물을 끓여도 영양분이 그대로라는데, 과연 사실일까?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지만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본래의 상태로 환원된다. 반면 미네랄은 끓여도 변함이 없는데. 이 말은 사실일까?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STEP 2 1:1채팅방 클릭

STEP 3 정답 및 의견
(정답 및 의견/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접수 마감일 3월 25일

선물 발송일 3월 31일



참여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2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미(8732)

CES 2026에서 한국 물기업들이 거둔 성과를 보며 대한민국 물산업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물 관리가 시와 만나 얼마나 혁신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 기사였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증명된 K-물산업의 가능성이 앞으로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길 기대합니다.



김○화(1602)

K-건축의 위상을 새삼 느끼게 해준 기사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우리의 건축 유산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철학과 역사를 품은 기록물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서(1533)

'요즘 눈이 안 온다'는 막연한 느낌을 넘어, 기온 상승과 기후 변화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설명해 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이 줄어든 현상이 우리가 직면한 환경 변화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 글이었습니다.



이○서(3444)

해외에서 사랑받는 K-푸드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이 특히 반가웠습니다. K-푸드의 매력이 더욱 널리 퍼지길 응원합니다.



최○민(6601)

우포늪 이야기를 통해 자연이 알려주는 '힘의 방식'을 흥미롭게 접했습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건강한 지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는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일까? 정답은 YES!

물이 얼 때 물 분자들이 육각형 결정 구조를 만들면서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얼음은 물보다 더 가벼워지면서 물 위에 뜨게 된다.

- | | | | |
|-----------|-----------|-----------|-----------|
| 김○현(4119) | 박○철(4349) | 임○혁(7155) | 한○연(1549) |
| 김○경(7925) | 손○하(3574) | 전○주(4945) | |
| 박○정(3873) | 윤○람(8780) | 하○화(3479) | |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카드지갑 5명

- 김○은(4778)
방○민(4277)
신○원(6035)
유○희(0962)
유○정(3649)

※ 3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방울이 옷 입히기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3월 20일
선물 발송 3월 28일

응모하기

경품

방울이 카드지갑
(5명)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블로그 이벤트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블로그에서 세계 물의 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퀴즈

'누구든,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무엇일까요?

※ 힌트 Light on 46p 참고

참여 방법

- ① 블로그 방문하기
- ② 이벤트 게시물에 비밀 댓글로 참여하기
- ③ 정답, 이름, 휴대폰번호 작성하면 참여 완료!

접수 마감일

3월 25일

당첨자 발표

4월 중 블로그에서 발표 예정

이벤트 경품

파리바게뜨 교환권 2만 원(10명)



올리브영 5천원 상품권(50명)

